

여수 석유화학 가동률 “고개 든다”

2월 평균 가동률 86.4%로 상승 ... 환율 상승으로 수출물량 확대

실물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 79%를 기록했던 여수 석유화학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86%로 상승했다.

4월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여수지사에 따르면, 여수단지에 입주한 20여개 석유화학기업의 2월 평균 가동률은 86.4%를 기록했다.

2008년 11월에는 실물경기 악화로 5년 만에 최저치인 79%를 기록했으나 2009년 2월에는 7%p 상승해 85%를 돌파했다.

여천 NCC 99%, LG화학과 한화석유화학이 각각 98%였으며 GS칼텍스와 호남석유화학은 80%대에 그쳤다.

석유화학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한 것은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시장 관계자는 “2009년 초부터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여수단지의 석유화학공장 가동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4/01>